

旌義고을(2)

김 영 돈*

目 次	
I. 머리말	VI. 住民 및 家族構造
II. 略 史	VII. 生業·經濟
III.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遺物	VIII. 歲時風俗
IV. 傳承文化	IX. 通過儀禮
V. 社 會	X. 參考資料

旌義고을이란 15세기초에서 20세기초까지 5세기 동안 제주도가 三分統治되었을 당시 旌義縣의 도읍지였던 兩濟州郡 表善面 城邑里를 말한다.

이 글은 文化財管理局의 의뢰에 따라 필자가 조사, 보고했던 《旌義고을》(民俗資料 保護區域調查報告書 第55號, 1973년 10월)의 일부인데, 《耽羅文化》第2號의 <旌義고을(1)>에 이어진다. 조사보고서 《旌義고을》이 한정부수여서 구할 길 없으며, 오늘날 이 마을의 일정구역이 政府指定文化財가 됨으로써 深層的인 조사연구가 더욱 절실하리라 믿고 同學들에게 한갓 자료로서 제시한다.

VI. 住民 및 家族構造

1. 住民構造

서기 1935년도 <城邑普通學校 存置를 위한 建議書>에 따른 「城邑里 주변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旌義고을 (城邑里) 全景

마을의 1935년도 戶數 및 城邑普通學校 在學生數」의 집계를 보면 城邑里의 戶數는 372호로 나타나 있다(城邑里男, 75 宋之俊氏 所有). 앞에 <表 2~4>를 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城邑里의 戶數가 1935년 당시 表善面內에서는 물론이거니와 城邑里와 가까운 城山面內의 몇몇 마을에 비하더라도 가장 많은 戶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972년도에 와서는 表善里의 절반이하로 城邑里의 戶數가 줄어들었고 1935년 당시 城邑里의 약 반수밖에 안되던 細花里에 대비하더라도 수십호가 모자라는 人口變動을 일으켰다(表 2~6 參照).

<表 2~6>에서 1935년도분은 앞에 말한 바 宋之俊氏가 보관한 <城邑普通學校 存置를 위한 建議書>에 따른 것이며 1972년도의 것은 表善面事務所에서 제공 받은 자료인데 그 정확성 여부는 제쳐놓고라도 37년 사이에 表善面 戶數의 약 53.8%가 불어난 셈이다. 100% 이상이 불어난 마을이 表善里와 細花里이며, 下川里와 兎山里 역시 약 70~90%가 불어났는데 비해 城邑里와 加時里는 20~30호씩 줄어들었다. 이것은 해안마을과 산간마을이 經濟·

生業·社會·交通·文化等 각부면에 걸쳐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대한 歷史的 變移度와 특히 生産·社會構造의 變貌相을 살피는 데 적잖은 示唆을 던져 준다.

〈表 2-6〉 1935 年과 1972 年의 表善面內 里別 戶數 對比

里 名	家 口 數		增 減
	1935 年	1972 年	
表 善 里	320	736	+ 416
下 川 里	150	291	+ 141
城 邑 里	372	342	- 30
加 時 里	323	300	- 23
細 花 里	188	392	+ 204
兔 山 里	151	252	+ 101
計	1,504	2,313	+ 809

資料：1935 年度：宋之俊氏 所有

1972 年度：表善面事務所

1973 年 현재 城邑里 家口數 통계는 表善面事務所와 城邑里事務所의 집계가 아주 다르다. 우선 城邑一里만을 볼 때 통계일자가 7 개월간 다르기는 하지만 面에서는 281 가구인데 里에서는 255 가구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말단행정 의 가장 기본적 자료인 家口나 家口員 통계가 상치된다는 일은 실제 부딪치고 보 니 좀 충격적이었다.

필자는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부설 文化財研究會의 학생들의 협조를 얻고 3 차에 걸쳐 연 15 일간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실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 결과 251 가구로 나타났다. 필자의 실제 조사와 面과 里의 집계를 대비하 면 〈表 2~7〉과 같다.

面統計와 里統計가 家口數 통계부터 26 가구의 차이가 나타났는가 하면 인 구수는 170 명이나 틀린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수는 항상 많지마는 그 차 이 역시 제각각이다. 面의 통계는 127 명, 里의 통계는 105 명이나 여자가 많 은데 실제조사에 따르면 단 31 명의 여자가 많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表 2-7〉 家口 및 家口員數 統計差 對比
(現地調査와 面統計·里統計의 對比)

城邑一里					
項目 統計別	家口數	家口員數			家口當 家口員數
		男	女	計	
現地調査 (1973年 7月末)	251	577	608	1,185	4.7
表善面統計 (1972年末)	281	566	693	1,259	4.5
城邑里統計 (1973年 7月末)	255	492	597	1,089	4.3

이유는 집계기준부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72년 연도별 家口 및 人口數를 보면 〈表 1~2〉와 같다. 해마다 減少一路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불과 5가구, 3가구에 15명, 10명 정도이니 그 減少率은 미미하다. 그러나 같은 表善面事務所에서 제공받은 1970년~72년 3년간의 年度別 轉出入人口(表1~3)를 살펴 보면 연간 평균 32가구에 136명씩 감소되고 있다. 인구의 自然增加現象에 따라 연간 130명이상이(30여가구) 계속 진출했어도 총체적

〈表 1-2〉 1970 - 1972 年度別 家口 및 人口

城邑一里						
年度	家口數	人口數			人口密度 (/km ²)	家口當 人口數
		男	女	計		
1970	289	594	690	1,284	38.8	4.4
1971	284	581	688	1,269	38.3	4.5
1972	281	566	693	1,259	38.0	4.5

資 料：表善面事務所

〈表 1-3〉 年度別 轉出入 人口

		城邑一里		
年 度		1970	1971	1972
轉 出	家 口	38 戶	41 戶	22 戶
	人 口	163	180	88
轉 入	家 口		3	2
	人 口		13	9
差 引	家 口	- 38	- 38	- 20
	人 口	- 163	- 167	- 79

資 料 : 表善面事務所

으로는 불과 10 여명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面內的 다른 마을의 人口 增加率과 대비하면 해가 갈수록 里勢가 기울어져 간다는 사실은 지나쳐 볼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한다. 〈表 2~6〉에서 우리는 1935년과 72년 사이, 곧 37년 사이 表善面 各里의 人口比의 엄청난 변동을 보았었다. 生産構造와 文化·交通的 與件을 포함한 社會構造의 改變이 없는 한, 城邑里와 같은 산간마을에서의 離農現象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教育熱이 높아져감에 따라 高等教育을 받은 주민이 불어나서 마을을 떠나 道內外로 직장을 얻어 나가는가 하면 職業轉換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城邑를 떠나는 등 그 동기는 다른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다양각색이다. 현지조사에 따른 城邑一里의 연령별 인구통계를 보면 〈表 2~8〉과 같다. 이를 10대에 따라 性別·年齡別 住民構成을 일람하면 〈表 2~9〉와 같이 집계되는 바, 역시 50세 이상은 여자수가 남자수에 비해 썩 많아진다. 곧 50대는 男 37인 대 女 50인, 60세 이상은 男 27인 대 女 76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60대가 19인 대 44인이며 70대가 6인 대 21인이고, 80대는 남자가 단 2인인데 여자는 11인으로 나타났다.

城邑一里는 年齡別性比로 보아 어떤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가?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本洞 뒷개 250 가구 및 濟州市 龍潭洞 동한두기 95 가구의 年齡別性比와 대비해 보자. 北村과 龍潭의 통계는 玄容駿教授의 〈濟州島 海村生

〈表 2-8〉 年齡別 人口統計

城邑一里

年齡	男	女	計	年齡	男	女	計	年齡	男	女	計
1	4	1	5	31	8	8	16	61	1	1	2
2	19	15	34	32	13	6	19	62	1	5	6
3	11	21	32	33	6	7	13	63		2	2
4	19	13	32	34	7	7	14	64	1	2	3
5	20	25	45	35	3	7	10	65	4	3	7
6	20	16	36	36	4	8	12	66	2	3	5
7	17	11	28	37	7	8	15	67	1	8	9
8	23	22	45	38	10	4	14	68	1	2	3
9	14	18	32	39	4	7	11	69		7	7
10	14	17	31	40	12	10	22	70		1	1
11	18	23	41	41	3	2	5	71			
12	19	13	32	42	2	4	6	72	1	1	2
13	12	14	26	43	8	9	17	73	1	4	5
14	14	14	28	44	3	5	8	74		3	3
15	12	19	31	45	2	3	5	75	2	7	9
16	18	13	31	46	4	7	11	76	2	2	4
17	14	11	25	47	3	5	8	77		1	1
18	21	18	39	48	3	7	10	78		2	2
19	13	8	21	49	5	4	9	79			
20	15	8	23	50	3	4	7	80		3	3
21	12	6	18	51	5	6	11	81		1	1
22	12	4	16	52	10	10	20	82		1	1
23	10	8	18	53	2	4	6	83		2	2
24	4	6	10	54	6	6	12	84	2	1	3
25	9	14	23	55	2	5	7	85			
26	11	3	14	56	4	2	6	86		1	1
27	5	3	8	57		3	3	87		2	2
28	10	13	23	58	3	6	9	88			
29	7	5	12	59	2	4	6	89			
30	9	2	11	60	8	11	19	計	577	608	1,185

○ 1973年 7月末 現在

○ 資 料：現地調査

〈表 2-9〉 性別 年齡別 住民構成

城邑一里						
區 分 年 齡	男		女		計	
	實 數	%	實 數	%	實 數	%
1 ~ 9	147	25.5	142	23.4	289	24.4
10 ~ 19	155	26.9	150	24.7	305	25.7
20 ~ 29	95	16.5	70	11.5	165	13.9
30 ~ 39	71	12.3	64	10.5	135	11.4
40 ~ 49	45	7.8	56	9.2	101	8.5
50 ~ 59	37	6.4	50	8.2	87	7.3
60 ~	27	4.7	76	12.5	103	8.7
計	577	100	608	100	1,185	100

○ 1973年 7月末 現在
○ 資 料 : 現地調査

活의 調査研究(1)〉(濟州大學 論文集 第2輯 1970)에 따른 것인데 1967년 7월 현재를 기준한 것이다. 北村里는 濟州市에서 東廻線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이면 이르는 전형적인 해안부락이다. 市에서의 거리는 18.9 km인데 朝天面의 맨동쪽에 위치해 있다.

포구에서 650 m쯤 떨어진 곳에 〈다려섬〉(類嶼島)이 있어 낚시터로 이름난 北村里는 半農半漁의 마을이면서 농업에 의해 주민의 식량을 자족하며 어업, 특히 해녀에 의한 裸潛漁業이 성한 점이 주민경제에 활기를 부여 하고 있다.

4.3 事件 때 청년층의 人命被害가 컸었으며 마을이 모두 탔었다.

龍潭洞 가운뎃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동한누기〉는 〈용머리〉(龍頭)에서 龍淵 구름다리로 이르는 濟州市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자그만 海村이다. 해촌이라고 는 하나 港灣이나 海產物生産이 별로 유리하지 못하여 옛부터 貧寒層이 사는 자그만 마을이다. 따라서 定着的 勢道家門이 있을 수 없으며 부동적 주민으로 이루어진 이 〈동한누기〉는 도시화의 경향이 짙어가는 마을이기도 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城邑 對 北村·龍潭의 年齡別 性比〉(表2~10)를 보면 우

〈表 2-10〉 城邑 對 北村·龍潭의 年齡別 性比

區分 年齡	男 子			女 子			女 100 人에 대한 男子의 比			
	城邑	北村	龍潭	城邑	北村	龍潭	城邑	北村	龍潭	北村·龍潭 平均
1~9	147	193	55	142	165	60	104	117	92	110
10~19	155	119	67	150	103	64	103	156	105	131
20~29	95	83	58	70	91	38	136	92	153	109
30~39	71	89	29	64	92	35	111	97	83	94
40~49	45	31	16	56	47	21	80	66	76	69
50~59	37	16	11	50	48	21	74	33	52	39
60 이상	27	22	17	76	83	30	36	27	57	35
計	577	553	253	608	629	269	92	88	94	90

資料：○城邑：1973年 7日末 現在 筆者現地調査
○北村·龍潭：1967年 7月 現在 玄容駿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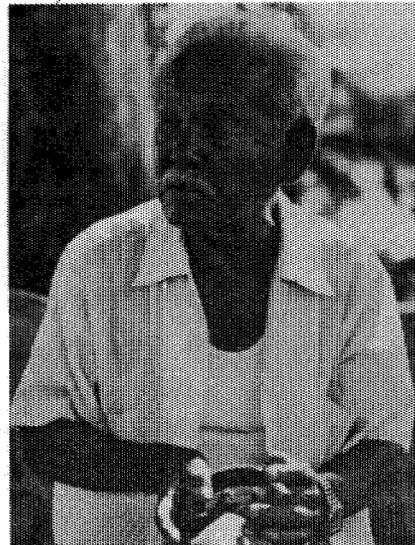
선 눈에 띄는 것은 60세 이상의 女 100인에 대한 男子의 性比가 北村의 경우 단 27이다. 엄청나게 寡婦世帶가 많은 이유는 4.3사건의 영향일 것이다. 城邑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女 100대 男 36으로서 北村·龍潭의 중간이기는 하나 역시 과부의 비율이 높다.

1972년도 《濟州道 統計年報》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性比는 〈表 2~11〉과 같다. 女 100인에 비한 男子의 비는 약 50%이니 城邑 역시 여인의 비율이 높다. 자연적 현상에 따른 것인지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알른 밝힐 길이 없다. 조사도중 女家口主人 경우는 男便不定인 여인이 7~8인 나타났다. 縣廳所在地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인듯 짐작은 되지만은 속속들이 조사해 보지 못했으므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男便不定의 여인들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많지 않다. 제주도의 다른 촌락에서의 이런 사례의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자세한 조사 결과에 따른 대비가 이루어져야만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71년 10월 1일 현재 제주도 총인구의 여자 100에 대한 性比는 92.0인데 城邑의 경우는

총인구의 性比와 마찬가지로다.

家族構造를 조사하는 가운데 家口員中 既婚女人인 경우 家口主의 妻 혹은 子婦들의 친정을 알아 보았다. 通婚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各家口의 女息들이 出嫁한 곳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이 작업은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城邑里 여인들의 親정을 보면 里內가 173인으로서 압도적이며, 面內가 21인, 郡內가 56인, 道內他郡이 11인, 道外가 2인으로 나타났다(表2~12 參照). 이 통계를 드러다 볼 때, 다음 몇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有能한 傳承者 宋之俊翁

(1) 城邑里 여인들의 親정의 65%가 城邑里內인 것을 보면 通婚圈은 마을안에 치중되어 있다.

〈表2-11〉 濟州道 農家人口中 60歲 以上者 性比

年度	60才以上人口計	60才以上男	60才以上女	女100人에 對한 男子의 比	備 考
1968	24,677	8,204	16,473	49.8	1973年 7月末 城邑里 60才 이상 女100人에 對한 男子의 比 36
1969	24,376	8,193	16,183	50.6	

資料：1972年度 《濟州道統計年報》

〈表2-12〉 通婚圈(入嫁女人) 實態

親庭	里內	城邑一里													道內	道外	計
		面 內						郡 內									
		加時	表善	下川	兎山	細花	計	新豐	蘭山	三達	衣貴	其他	計				
人員	173	7	7	5	1	1	21	20	11	6	6	13	56	11	2	263	
%	65	3	3	2	0.5	0.5	9	8	4	2	2	5	21	4	1	100	

○ 1973年 7月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

(2) 같은 面인 下川, 兎山, 細花 등 해안부락이 친정인 여인수가 적으며, 더구나 가장 왕래와 교섭이 심한 表善이 친정인 여인수가 의외로 적다.

(3) 他面이지만 城邑과 이웃해 있는 新豐, 蘭山 및 面內的 加時 등과 通婚率이 많은 이유는 같은 산간마을이라는 이유로 보인다.

5백년간 縣廳所在地 당시에는 城邑里 이웃에서 城邑과 通婚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었을 것이며 성읍주민들도 영간히 거드름부렸을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은 주민의 의식구조를 말할 때 예들었지만 城邑의 강신희여인이 松堂으로 출가할 때의 일화로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14년 縣制度는 사라졌고, 面事務所마저 表善으로 옮겨졌는데다 해산물 채취로써 家計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해안부락에 비하면 성읍리는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經濟, 社會構造의 변동 위에 해안부락은 나날이 편리해져가는 交通構造가 덧붙여지면서 城邑과 같은 산간부락을 예전처럼 소중히 여기질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城邑里는 마을과 이웃해 있는 生産, 社會, 經濟적으로 비슷한 산간부락과의 通婚率이 짙어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음에는 初婚年齡을 살펴보기로 하자. 城邑一里 既婚住民 430명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현연령과 초혼연령과의 관계는 <表 2~13>에 나타난 것처럼, 첫째 전국적 현상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오히려 20대, 30대에 이를수록 초혼연령은 높다. 둘째, 初婚年齡은 15세에서 36세에 이르고 있는데(그래프 1참조), 초혼연령에 따른 인원을 남녀별로 보면 다음 사실을 요약할 수 있다.

(1) 여자는 初婚年齡이 이르고 남자는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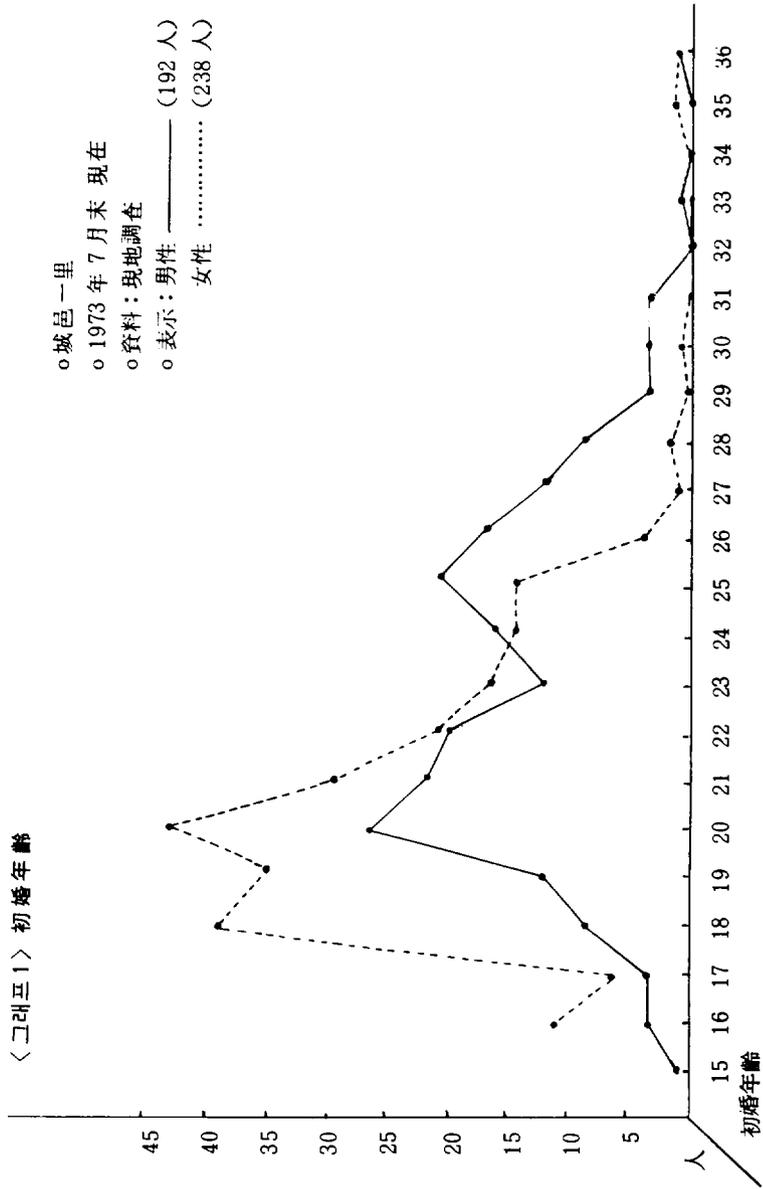
(2) 여자의 初婚年齡은 18~25세 사이, 특히 18~22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지만 남자는 주로 19~27세 사이에 완만하게 분산되어 있다. 제주도의 다른 촌락의 初婚年齡이 집계된 바 아직 없으므로 대비하여 논의할 계재는 못되지만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20세에 쏠리고 있음은 색다른 바 있다. 말하자면 初婚年齡이 다른 마을들에 비해 이른 것 같다. 특히 여성인 경우, 성읍리 주민의 초혼연령은 18~21세에 집중되어 있다. 제주도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성읍리 주민의 초혼연령이 이르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혹 縣廳所在地 당시의 유다른 여건에 따라 異性間的 不熟性이 아직도 저변에 흐

〈表 2-13〉 現年齡과 初婚年齡과의 關係
城邑一里

性	初婚年齡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計	%
	現年齡																									
男	20 ~ 29							6	6	7		5	3	5	3	2									37	19.3
	30 ~ 39					2	8	9	3	4	4	11	11	4	2	1	3								62	32.3
	40 ~ 49		1	4	4	4	2	5	4	2	3	3	1	2	2	2			1		1				39	20.3
	50 ~ 59		2	1	3	1	4	3	3	2	3	3	1	2	2				1						31	16.1
	60 ~ 69			1	1	3	2	2	1	2	2		1						1						15	7.8
	70 ~ 79	1				2	1	1					1											1	6	3.1
	80 ~ 89						1																	1	2	1.1
	男 計		1	3	3	8	12	26	22	20	12	16	21	17	12	8	3	3	3	3	1			1	192	100
女	20 ~ 29				1	5	7	5	5	7	3	1	3	1	1										38	16
	30 ~ 39				2	9	9	10	6	3	5	5	1	1	1			1							53	22.3
	40 ~ 49			3	2	6	8	5	6	4	3	4										1			47	19.7
	50 ~ 59			3	1	8	5	12	6	3	1	2	1											1	42	17.7
	60 ~ 69			3		13	4	7	3		1	2													34	14.3
	70 ~ 79			2	2	7	2	1		1		1													16	6.7
	80 ~ 89					3	2	2																	8	3.4
	女 計		11	6	39	35	43	29	21	16	14	14	4	1	2									1	238	100
計		1	14	9	47	47	69	51	41	28	30	35	21	13	10	3	4	3		1			1	2	430	
%		0.2	3.3	2.1	10.9	10.9	16.1	11.9	9.5	6.5	7.0	8.1	4.9	3.0	2.3	0.7	0.9	0.7		0.2			0.2	0.5	100	

○ 1973 年 7 月 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



르고 있기 때문일까? 어쨌든 한갓 숙제로 돌려 둔다.

城邑一里 주민의 직업별구조를 보면 대체로 농업위주다(表2~14 참조). 다만 광활한 牧野地가 있으므로 畜産業을 專業, 혹은 兼業으로 경영하고 있다. 농업 536명 가운데는 半農半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城邑二里에는 城邑主畜團地가 규모있게 마련되어 있고 城邑一里에서도 5가구나 이 主畜團地에 입주하여 축산

<表 2-14> 職業別 人口

城邑一里

職業	班																				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農 業	29	24	28	32	44	26	33	20	24	34	18	20	27	23	29	10	15	32	31	37	536
商 業						1		5					2		1	2	1	2			14
畜 産 業			2	1	1			2		1						1			2		10
半農半工						2															2
木 工 業							1		2	1								1			5
精 米 業						1							2								3
運 輸 業						1															1
會 社 員		1			2											2	1		1		7
軍 人	4			2	2			1					2				1	1		3	16
一般公務員	1				1	1	2		1												6
教育公務員						2									1						3
教 役 者											1										1
모 델								1													1
理 髮 師									1												1
潛在失業	1	2	4			1		1			1	1	1	2			1		4		19
無 職					2	4		2	3	1	1	1		1	1	2	2	7		2	29
就 學	16	7	21	19	24	22	14	5	12	20	17	10	14	19	17	12	13	19	24	27	332
未 就 學	9	1	9	13	14	11	15	11	10	19	13	7	9	2	11	5	11	3	12	14	199
計	60	35	64	67	90	72	65	48	52	77	51	41	55	49	60	33	46	63	74	83	1,185

○ 1973年 7月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

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더러 城邑마을은 예전부터 牛馬의 產地로 널리 알려 졌다. 여자의 머리에 덧대어 엮는 띠머리 1人分을 마련하기 위해 말 한마리를 팔았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牛馬飼育을 극성스럽게 했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군인이 16명이라는 통계는 딴 마을보다 軍出征數가 많아서라기보다 군출정인 경우를 現家口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商業이 14명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자그만 규모의 가게를 경영하는 주민들이다. 城邑一里에는 가게가 13개소 있다. 가게 주인들은 더러 농업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구 속에는 半農半商도 좀 포함되었다는 말이 된다. 요약하여 城邑住民의 직업구성에 유다른 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전형적 농업위주의 마을이면서 축산에 꽤 관여하는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職種の多樣性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곳이다.

住民의 姓氏는 康·金·李·洪·高·宋 등의 순위다. 가장 많은 康氏만 하더라도 谷山康氏와 信川康氏의 兩本인데다 전가구의 불과 23.1%다. 金氏 역시 金海金氏, 光山金氏, 慶州金氏 등으로 나누어졌고 다음 全州李氏를 중심으로 한 李氏家門과 南陽洪氏, 濟州高氏 및 洪州宋氏 등이다(表2~15 참조).

〈表 2-15〉 家口主姓氏

		城邑一里										
姓	康	金	李	洪	高	宋	玄	趙	邊	鄭	梁	韓
家口主數	58	38	32	24	19	19	12	11	6	7	4	4
%	23.1	15.1	12.7	9.6	7.6	7.6	4.8	4.4	2.4	2.8	1.6	1.6

姓	吳	崔	林	朴	許	徐	夫	文	安	柳	計
家口主數	3	3	3	2	1	1	1	1	1	1	251
%	1.2	1.2	1.2	0.8	0.4	0.4	0.4	0.4	0.4	0.4	100

○ 1973年7月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

各姓氏別로 각각 족보와 가문에 따른 전승을 살살이 조사하면 城邑入住經緯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이런 작업을 치를 여유를 못가졌다. 高龍熙氏 등의 말에 따르면 現城邑住民의 源流는 첫째 關軒살이한다고 入住한 분들의 후예와 둘째 다른 마을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



旌義고을 돌하르방(벽수머리)

런 못한 영세민들이 살길을 찾아 넓다란 미개간지를 일구어 본다고 물려든 후손들이 대부분이리라는 추측이다. 이 추측이 대충 들어맞는다면 거의 非同族의 住民構成의 까닭도 自明해지는 것이다.

城邑一里에는 大韓佛敎法華宗 靈佛寺와 大韓예수교長老會 城邑長老教會가 있다. 靈佛寺 및 城邑長老教會의 연혁, 내용과 주민의 종교의식에 대하여는 <傳承的 生活文化> 속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다. 말하자면 城邑住民들은 외래종교에 대하여 함부로 물드는 편이 아니라는 점과 종교활동에 적극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대로 주민의 신앙실태를 보면 佛敎能가 압도적이어서 거의 500명에 달하며, 다음 基督教 신도수는 180여명이다. 나머지 타불교, 天地大安敎 신자가 한 두가구 있다. 靈佛寺 신도수는 약 75 가구, 350여명인데 下川 1가구, 三達 3가구, 新豊 1가구를 제하면 모두가 城邑里內의 신도들이다. 城邑一里에서는 靈佛寺 외로 表善 등지의 寺刹에도 나간다. 그래서 도합 약 500명의 불교도가 있는 셈이다. 靈佛寺 住持 崔德弘氏는 원래 忠北출신으로서 10여년전 아는 분의 인연으로 城邑에 入住, 親庭이 新山里인 康貞子 女人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비단 초라한 절을 3년전에 城邑里 503번지에 건립한 정도이지만 어차피 佛敎 敎勢擴張은 사실상이 崔德弘氏(法名 觀泰)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3년 5월초부터 <城邑教會 나사렛學院>을 설치, 중학교 과정의 夜間 學習을 시키기도 하는 城邑長老教會의 신도수는 <表 2~16>과 같다. 이 교회의 신도들은 거의가 어린이들이며, 全家族이 신앙하는 경우는 단 한가구라는 점도 흥미있다. 도내에서도 연륜 깊은 城邑教會의 경우, 이처럼 포교활동이 부

〈表 2-16〉 城邑長老教會信徒數

年齡 性別	15歲未滿	15 ~ 20 歲	21 ~ 40 歲	41 歲以上	計
男	45	25	12	1	83
女	70	23	8	2	103
計	115	48	20	3	186

○ 資料：城邑長老教會

○ 1973 年 7 月末 現在

진해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城邑一里 주민의 반별 학력통계는 〈表 2~17〉과 같다. 인구나 생활정도가 비슷한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주민과의 학력을 대비하면 〈그래프 2〉처럼 나타난다. 5백년간 旌義縣의 도읍지였다는 점을 빼고 나면 지금의 여건으로는 北村이 오히려 생활이 유리하다. 北村里는 濟州市와 불과 18.9 km에 위치한 일주도로변의 해안마을이다. 朝天面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威德과 이웃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요, 이듬난 낚시터로서 근래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다. 한시간이면 제주시에 이를 수 있으므로 市文化圈과의 交流도 빈번하다. 4·3 事件때의 심한 피해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컸었으나 海女作業이 활발하여 住民所得도 꽤 많은 편이다.

이 두마을 주민의 學歷을 대비하면 대체로 北村이 劣勢다. 中卒數가 20명 많을 뿐 나머지는 城邑里가 우세한 편이다(물론 조사 연도가 北村의 경우는 6년전이므로 바람직한 對比일 수는 없지만). 一周道路에서 약 8 km 올라간 산간마을이면서 城邑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지니고 목축을 主要副業으로 하는 城邑과 여건이 비슷한 마을의 통계를 가져 있지 못하므로 주민의 학력정도에 대하여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산간마을로서의 주민의 학력은 平凡한 편이 아닌가 한다.

1935년 당시만 했어도 도내에서도 몇 안되는 普通學校가 성읍마을 안에 있었으며 表善面內에서는 물론 城山面內이면서도 城邑과 이웃한 마을들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호수였을 뿐더러 재학생수도 전학생의 약 4분의 1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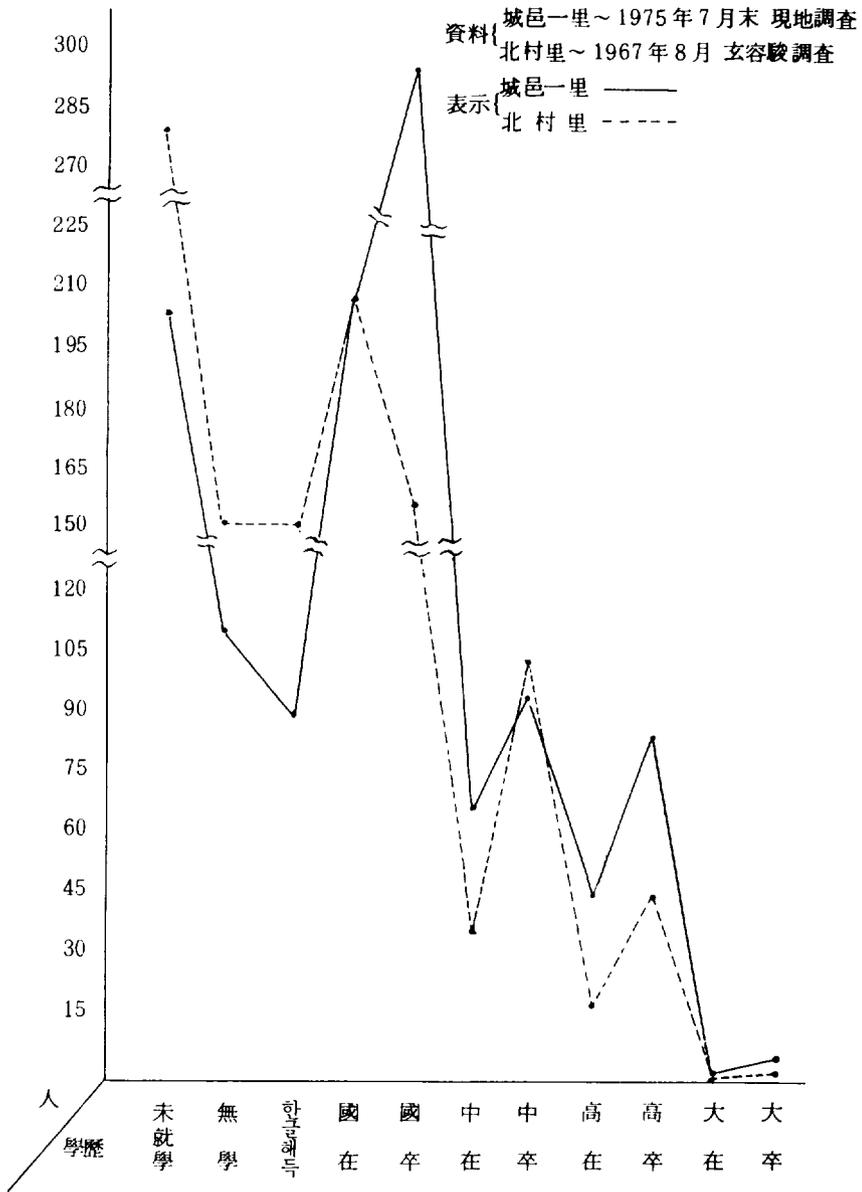
〈表 2-17〉 住民의 學歷

班別 學歷	城邑一里																				計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末就學	10	1	9	13	14	11	19	11	10	19	12	5	7	4	11	4	10	5	15	14	204	17.2
無學	5	7	2	8	4	5	2	9	6	4	3	5	7	6	5	5	3	6	9	7	108	9.1
社登解得	11	2	3	5	1	2	2	2	6	7	2	6	7	4	5	3	3	5	3	5	84	7.1
國在	4	5	16	17	16	11	12		8	13	12	4	9	9	13	7	9	16	11	18	210	17.7
國卒	5	10	27	14	30	17	21	10	11	20	11	11	16	9	14	6	13	13	14	22	294	24.8
中在	6	2	4	1	4	5		2	3	2	5	4	3	3	2	3	1	3	6	5	64	5.4
中卒	8	2	1	2	6	8	3	5	6	5	1	4	4	6	2		4	11	8	5	91	7.7
高在	4		1	1	3	6	2	1	1	5		2		5	2	1	1		4	3	42	3.5
高卒	7	5	1	6	10	4	6	8	1	2	4		2	3	6	4	2	4	4	4	83	7.0
大在																					1	0.1
大卒		1				1					1										4	0.3
計	60	35	64	67	90	70	67	48	52	77	51	41	55	49	60	33	46	63	74	83	1,185	100

○ 1973年7月末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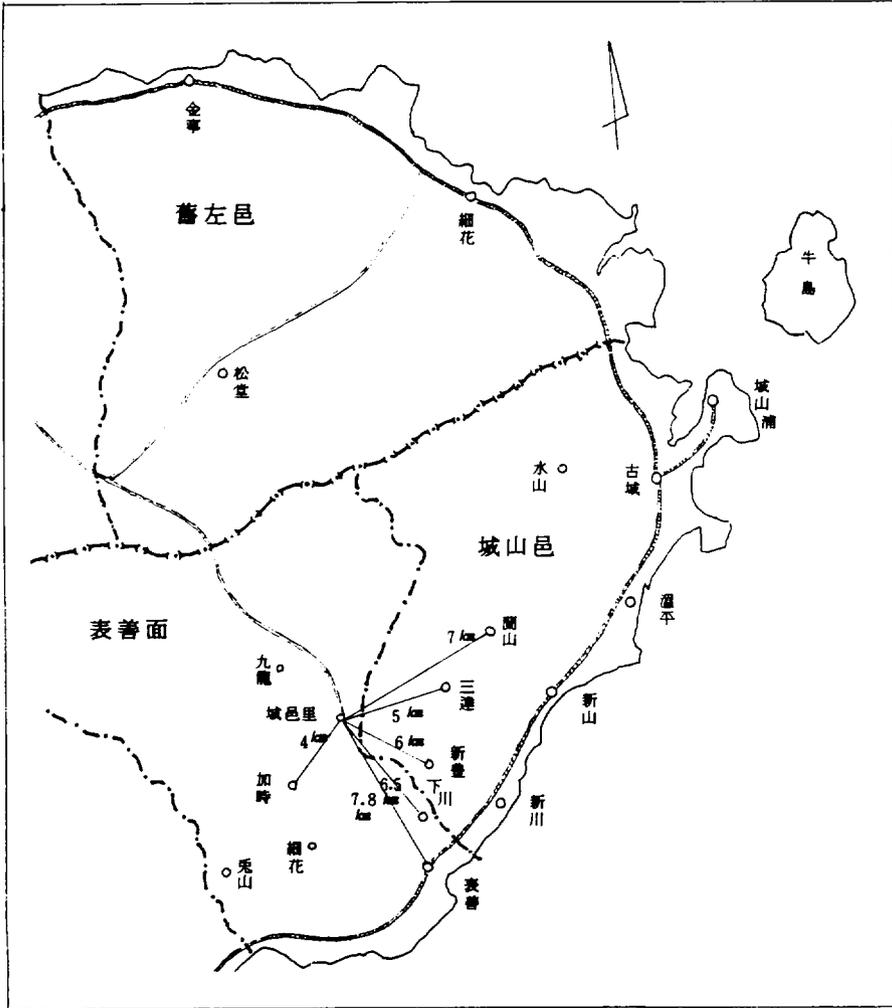
○ 資料：現地調査

〈그래프 2〉 城邑・北村 住民의 學歷對比



지하고 있었지만(表2~4參照) 學歷이 곧 출세와 직결된다는 관념이 사라지면
서 城邑 역시 범상한 마을로 탈바꿈했다. 價値意識의 改變이란 城邑里라고
외면될 수 없었다.

城邑里와 주변마을과의 距離地圖



2. 家族構造

城邑一里의 家口當 平均人口를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濟州市 龍潭洞의 <동한두기> 및 南濟州郡과 濟州道의 統計 등과 대비해 보면 <表 2~18>과 같다. 濟州道를 통틀어 家口當 平均人口가 4.4명인데 城邑一里의 경우는 4.7명이나 0.3명이 많다. 城邑一里는 男女性比가 다를 뿐, 그 가구당 평균 인구는 朝天面 北村里와 같다. 龍潭洞 <동한두기>의 가구당 평균인구는 5.5명으로서 꽤 많은 편인데 이는 평범한 海村이기는 하나 역시 濟州大學과 이웃해 있는 都市化 도중의 동네이므로 公務員, 學生層의 寄宿이 많은데서 연유하는 줄 안다.

家口當 平均人口가 全濟州道의 통계에 비하여 0.3명이 많다고 하지만 맨앞에 제시한 바 <表 1~1>의 表善面事務所 집계 1972년말 현재 表善面內 里別家口 및 人口統計를 보면 城邑一里의 家口當 人口數는 4.4명으로서 表善面內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全濟州道의 통계와 같다. 무슨 통계든 그 통계하는 기준과 방법여하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설명 차이

<表 2-18> 城邑 對 北村·龍潭의 家口 및 人口對比

項目 里別	家口數	人口數			家口當平均人口		
		男	女	計	男	女	計
城邑一里	251	577	608	1,185	2.3	2.4	4.7
北村里	250	553	629	1,182	2.2	2.5	4.7
龍潭洞	95	253	269	522	2.7	2.8	5.5
南濟州郡	32,145	70,478	76,107	146,585	2.2	2.4	4.6
濟州道	84,818	178,870	194,328	373,198	2.1	2.3	4.4

資料 : ○城邑一里 : 1973年 7月末 現地調査
 ○北村·龍潭 : 1967年 8月 玄容駿調査
 ○南濟州郡·濟州道 : 1972年 南濟州郡統計年報

야 있다손치더라도 城邑一里의 경우는 해마다 濟州道の 家口當 平均人口와 비슷한 數値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주도 총체의 家口當 平均人口는 10여년간 4.4인에서 4.7인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龍潭洞 <동한두기>는 5.5인데 金宅圭氏의 《同族部落의 生活構造研究》에 따르면 河回의 경우는 1961년~1964년 사이의 家口當 평균인구가 5.1인에서 5.7인 사이라는 점과(同著 p.41, 表2~7 戶數·人口 參照) 비슷하다.

다음은 家口成員 곧 家族의 크기를 보기로 하자. 城邑一里의 家口成員 및 北村里(北濟州郡 朝天面), 龍潭洞(濟州市 龍潭洞中 <동한두기>部落)과 河回洞(慶尙北道 安東郡 豐川面)의 家口成員을 대비하면 <表2~19>와 같다. 城邑

<表2-19> 城邑對 北村·龍潭·河回의 家口成員(家族의 크기) 對比

里 別	家族數 項目	1 2 3 4 5 6 7 8 9 10 11											計
		城邑一里	家口數	21	40	31	29	33	31	29	20	10	
	%	8.4	15.9	12.4	11.6	13.1	12.4	11.6	8.0	4.0	2.4	0.4	100
北村里	家口數	15	13	39	31	53	36	32	16	3	2		240
	%	6.0	9.2	15.6	12.4	21.2	14.4	12.8	6.4	1.2	0.8		100
龍潭洞	家口數	4	12	7	12	11	13	12	15	2	7		95
	%	4.2	12.6	7.4	12.6	11.6	13.7	12.6	15.8	2.1	7.4		100
河回洞	家口數	7	18	25	23	18	24	27	13	8	2	1	166
	%	4.2	10.8	15.1	13.9	10.8	14.5	16.3	7.8	4.8	1.2	0.6	100

資料：○城邑一里：1973年7月末 現地調査

○北村·龍潭：1967年8月 玄容駿調査

○河回：1964年 金宅圭調査

一里의 경우 2人家族世帶가 15.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5人家族世帶(13.1%)이며 그 다음은 3人家族世帶와 6人家族世帶인데 12.4%로서 同數이다. 北村里는 5人家族世帶(21.2%), 3人家族世帶(15.6%) 順이며, 龍潭洞은 8人家族世帶(15.8%), 6人家族世帶(13.7%)가 많은가 하면, 河回洞은 7人家族世帶(16.3%)와 3人家族世帶(15.1%)의 비율이 높다.

家族構造의 特性으로 보아 韓本土의 경우는 대체로 大家族의 형태이므로 河回의 경우 7人家族世帶가 상위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는데 龍潭洞 <동한두기>에서 8人家族世帶가 가장 많은 것은 제주도의 가족구조로 보아 異形이다. 역시 都市性을 띠고 있으므로 寄宿하는 家口員이 많은 데서 연유되는 터이다. 그런데 他 3里에 대비한 城邑一里의 家族成員上 特異性은 무엇일까? 첫째, 2人家族世帶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요, 다음에는 1人家族世帶數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2人家族世帶數가 가장 많은 점은 흥미 있는 일이다. 龍潭洞에서는 3位, 河回에서는 5位, 北村里에서는 8位에 머물고 있는 2人家族世帶가 城邑一里에서 最上位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4.2%에서 6.0%에 머물고 있는 1人家族世帶가 城邑一里에서는 8.4%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은 무슨 그럴다할 이유가 없는 한갓 우연인지, 혹 5백년간 縣廳所在地로서의 住民構成 내지 사회구조상 특이성에서 빚어낸 결과인지 의문이다. 1人, 2人家族世帶 각각에 대한 별도 조사를 치밀히 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자료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表 2~20>에서 보면 성읍리에서 1人家族世帶는 男家口主가 4인인데 女家口主가 17인에 달하고 있다. 앞에 住民構造를 살필 때도 언급했었지만 과부의 비율이 城邑

<表 2-20> 家口主性別家口成員

城邑一里

家口主	家口員 家口數	1	2	3	4	5	6	7	8	9	10	11	計
		男家口主	實 數 4	22	17	18	27	30	29	20	9	6	
	%	2.2	12.0	9.3	9.8	14.8	16.4	15.8	10.9	4.9	3.3	0.5	100
女家口主	實 數 17	18	14	11	6	1			1			68	
	%	25.0	26.5	20.6	16.2	8.8	1.5		1.5			100	
計	實 數 21	40	31	29	33	31	29	20	10	6	1	251	
	%	8.4	15.9	12.4	11.6	13.1	12.4	11.6	8.0	4.0	2.4	0.4	100

○ 1973年7月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

一里의 경우 높은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4·3 사건의 영향으로 과부의 비율이 城邑보다 훨씬 높은 北村의 경우도 1人家族世帶는 6.0%인데 城邑에서는 8.4%로 올라갔다. 곧 <表 2~10>을 보면 60세 이상의 여자 100인에 비한 남자의 比가 城邑 36에 北村 27이다.

<表 2~20>에서 보면 城邑里的 男家口主의 경우는 2人家族世帶로부터 8人家族世帶까지 골고루 흩어졌으면서 특히 5,6,7人家族世帶로 쏠림에 반하여 女家口主인 경우엔 1인~3인家族世帶에 쏠렸다. 女家口主의 家口가 적은 가족을 거느리는 사실은 곧 이해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마을이든 공통된 현상이다.

城邑一里의 家口主 性別의 비율을 北村·龍潭과 對比해 보면 <表 2~21>과 같다. 龍潭과 城邑과는 비슷한 비율이요, 北村은 비교적 女家口主가 많다. 앞에서 말했지만 北村은 4·3 사건의 피해가 극심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口主 性別 對比로서는 城邑의 경우 별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表 2-21> 城邑 對 北村·龍潭의 家口主 性別對比

里 別	性別		計	
	項目	男		女
城 邑 一 里	家 口 主 數	183	68	251
	%	72.9	27.1	100
北 村 里	家 口 主 數	154	96	250
	%	61.6	38.4	100
龍 潭 洞	家 口 主 數	66	29	95
	%	69.5	30.5	100

資料：○城邑一里：1973年7月末 現地調査
 ○北村·龍潭：1973年8月 玄容駿調査

<表 2~22>에서는 世帶數別 家口를 제시한다. 2세대 가구가 70.5%로써 압도적이며 1세대와 3세대는 15% 내외다. 4세대 가구는 없었다. 1세대 가구란 夫婦거나 同世帶血緣으로 이뤄진 家口이며, 2세대 가구란 夫婦와 그子女

〈表 2-22〉 世帶數別家口

城邑一里

班 世帶別	班																				計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一世帶		2		1	1	3	1	2	3	8	1	3	1	1	1	2	1	1	3	1	36	14.4
二世帶	3	4	9	10	14	11	16	11	7	10	8	5	9	8	8	5	6	9	9	15	177	70.5
三世帶	7	2	2	2		1		1	2	1	1	2	3	2	3	2	3	2	2		38	15.1
計	10	8	11	13	15	15	17	14	12	19	10	10	13	11	12	9	10	12	14	16	251	100

○ 1973 年 7 月 末 現 在

○ 資 料 : 現 地 調 査

代와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구이고 3세대 가구란 夫婦와 그 子女代 및 孫代와의 혈연으로 성립된 가구다. 어차피 2世帶 家口가 70.5%임은 제주도적 가족구조의 특성을 말해 주는 것인데 다른 마을의 조사통계를 가져 있지 못하므로 城邑一里의 特性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점인지 밝힐 길이 없다. 더구나, 이 특성이 밝혀지려면 家族類型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家堡와 家屋, 家族들의 生産, 經營, 消費에 대한 조사 및 相續, 分家の 연구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城巴里 周邊地圖

